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한국, 더 이상 경제성장의 모범국가가 아닌가?
 - 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목 차

- 한국, 더 이상 경제성장의 모범국가가 아닌가?
- 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Executive Summary	i
1. 성장과 분배, 모두 악화되고 있는 한국	1
2. 주요국 경제성장과 분배수준의 특징	3
3. 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8
4. 시사점	10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동북아연구실 : 박 용 정 연 구 원 (2072-6204, yongjung@hri.co.kr)

Executive Summary

□ 한국, 더 이상 경제성장의 모범국가가 아닌가?

- 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 성장과 분배, 모두 악화되고 있는 한국

과거 한국경제는 높은 성장세와 상대적으로 양호한 분배가 이뤄지면서 경제성장의 모범국가로 일컬어졌으나, 최근 들어 성장세 약화는 물론 분배 수준도 악화되면서 모범적인 경제성장 모델로서의 한계에 봉착하였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선진국 및 신흥국 4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00~'09년, '10~'15년 각각 1.3%p, 0.7%p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지만, 소득재분배(시장소득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수준은 동기간 평가 대상국과의 격차가 10.88에서 11.71로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총요소생산성(TFP) 성장률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소득불평등 수준이 추세적으로 악화되는 등 지속성장 기반이 위협받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 주요국 경제성장률과 분배수준의 특징

성장률과 분배 수준의 국제비교를 위해 '00~'09년 대비 '10~'15년 경제성장률과 소득재분배 수준이 상승한 8개국(10개국 중 멕시코, 에스토니아 제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선정된 국가들을 복지모델 유형에 따라 북유럽(스웨덴, 덴마크), 대륙(독일, 룩셈부르크), 앵글로색슨(미국,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모델로 그룹화 하여 효율성 및 형평성 지표를 중심으로 한국과 비교 분석하였다.

1) 효율성 평가 결과

(경제성장률과 총요소생산성 기여도) 앵글로색슨 그룹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경제성장률 저하 뿐 아니라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 앵글로색슨 그룹의 경제성장률과 총요소생산성 성장 기여도는 각각 '04년 4.0%→'14년 4.1%, '04년 1.7%p→'14년 1.8%p로 0.1%p씩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4년(4.9%)과 비교하여 '14년(3.3%) 성장 수준이 낮아진 가운데 총요소생산성 성장 기여도 부문은 '04년 3.0%p에서 '14년 -0.8%p 마이너스 기여도로 전환되는 등 기술진보, 효율성 향상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실업률과 고용률) 실업률은 앵글로색슨과 대륙 그룹, 고용률은 북유럽 그룹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고, 한국은 청년층 고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05년 앵글로색슨 그룹의 실업률은 전체 5.4%, 청년층 11.4%, 노령층 3.6%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15년에는 대륙 그룹이 전체 5.7%, 청년층 12.3%, 노령층 4.7% 등 전 항목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고용률은 북유럽 그룹이 '05년 청년층을 제외하고 '05년, '15년 전 항목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의 전체 실업률 수준은 '05년 3.9%, '15년 3.7%로 비교 대상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청년층의 고용률은 '05년 29.9%, '15년 26.9%를 기록하

면서 OECD 평균 '05년 42.8%, '15년 40.5%를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형평성 평가 결과

(사회복지지출과 소득재분배) 북유럽 그룹이 가장 높은 사회복지지출과 소득재분배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두 지표 모두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00~'13년 평균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북유럽(27.3%), 대륙(24.4%)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소득재분배 역시 북유럽(22.0), 대륙(19.8) 순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반면 한국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과 소득재분배 수준이 각각 '00~'13년 평균 7.5%, 2.3을 나타내며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분위배율) 북유럽 그룹은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분위배율 수준이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한국은 두 지표 모두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북유럽 그룹의 상대적 빈곤율은 '05년 5.3%→'13년 7.1%, 소득분위배율은 '05년 4.7→'13년 5.9를 기록하였다. 한편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분위배율은 각각 '06년 14.3%, 9.5→'13년 14.6%, 10.1로 타 그룹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 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요국 경제변수로 구성된 동적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을 활용하여 분배의 경제성장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득재분배가 인적, 물적자본과 같은 투입요소들의 영향력을 보완하여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전체 43개국 추정 결과 경제성장률 개선 효과는 인적, 물적 자본의 투입이 각각 1%씩 상승하였을 경우 0.18%p, 0.12%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재분배의 경우 1p(시장소득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지니계수, 100점 기준 지니계수) 개선되었을 경우 경제성장률은 0.10%p 추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개선된 10개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물적자본과 소득재분배의 경제성장률 개선효과는 각각 0.20%p, 0.15%p로 추정되었다.

■ 시사점

한국경제는 분배가 경제성장의 주된 요소는 아니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폐해를 수정·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선순환 메커니즘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국내 거시경제정책은 경제성장의 과실이 경제·사회 전반에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분배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분배가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방지해야 한다. 셋째, 우리 경제가 고령화·저출산 심화 등으로 인한 복지 수요의 증대 및 사회적 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중장기 재원조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향후 분배를 통한 경제·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생산성 증대 및 이를 통한 성장기반 확충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분배정책의 합리성과 정당성,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1. 성장과 분배, 모두 악화되고 있는 한국

○ 과거 한국경제는 높은 성장세와 상대적으로 양호한 분배가 이뤄지면서 경제성장의 모범국가로 일컬어졌으나, 최근 들어 성장세 약화는 물론 분배도 악화되면서 모범적인 경제성장 모델로서의 한계에 봉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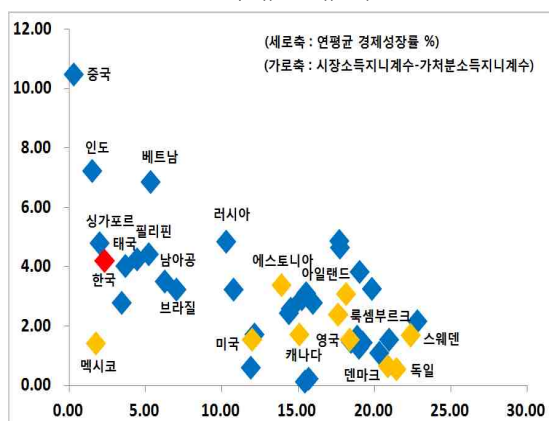
-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질 않는 국가로 전락한 한국

- '10~'1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0%로 '00~'09년 연평균 4.2%보다 약 1.2%p 하락
- 또, 동기간 연평균 소득재분배(시장소득 지니계수 -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10년대 2.28로 '00년대 2.32보다 악화, 사회 전반의 분배 불균형이 심화

- 상대적으로도 경제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분배

- 한국은 '00~'09년 4.2%, '10~'15년 3.0% 수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동기간 비교 대상인 43개국(OECD 34개국과 9개 신흥국) 연평균 경제성장률 2.9%, 2.3%에 비해 각각 약 1.3%p, 0.7%p 높았음
- 하지만, 동기간 한국의 연평균 소득재분배 수준과 평가 대상국 수준과의 격차는 '00년대 10.88에서 '10년대 11.71로 확대되었음

< 2000년대 연평균 경제성장률 및 소득재분배 수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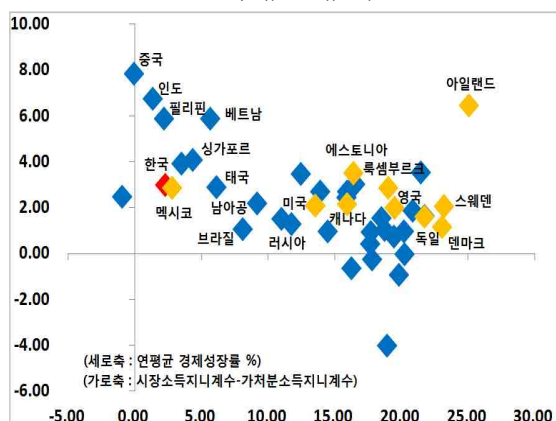


자료 : SWIID, IMF, 현대경제연구원.

주1) '00~'09년 기준.

2) 지니계수 0은 완전평등, 100은 완전불평등을 의미.

< 2010년대 연평균 경제성장률 및 소득재분배 수준 >



자료 : SWIID, IMF, 현대경제연구원.

주1) '10~'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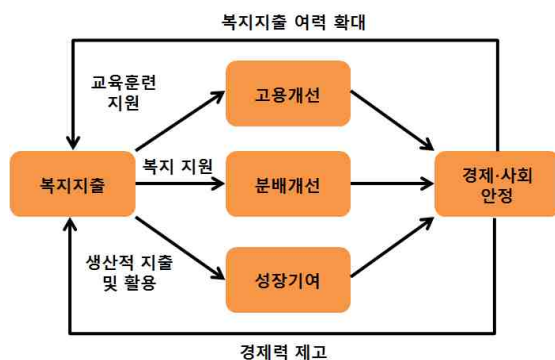
2) 지니계수 0은 완전평등, 100은 완전불평등을 의미.

○ 더욱이 한국경제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저하와 더불어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지속성장 기반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분배와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저하와 소득불평등 수준의 추세적 상승 지속
 - 한국의 총요소생산성(TFP) 연평균 증가율은 '00년대 1.93%에서 '10년대 1.14%로 약 0.79%p 하락
- 소득불평등 수준의 추세적 상승 지속
 - 사회 전반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0년 0.279에서 '15년 0.305까지 상승
- 분배와 경제성장의 선순환 메커니즘에 대한 의견 대립
 - 복지 지출(분배)의 확대는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¹⁾과 분배 구조의 개선을 통한 소득불평등 감소가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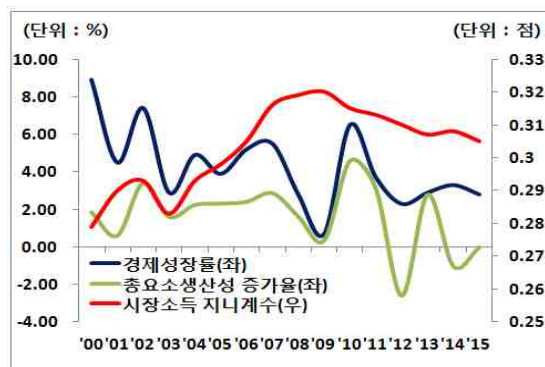
○ 이하 국내 분배 수준에 대한 국제 비교는 물론 분배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분배정책이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메커니즘³⁾ >



자료 : 한국은행.

< 한국 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 및 총요소생산성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The Conference Board.
 주1) 도시 2인 이상 시장소득 지니계수.
 주2) 지니계수 0은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을 의미.

1) Pestieau, Pierre(2006), 「The Welfare State in the European Union: Economic and Social Perspective s」, Oxford University Press.
 2) D. Ostry et al(2014),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IMF STAFF DISCUSSION NOTE.
 3) 김윤겸 (2017), 「글로벌 사회복지지출의 특징과 시사점」,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제2017-14호.

2. 주요국 경제성장과 분배수준의 특징

1) 주요국 선정 및 평가 방법

- Esping-Anderson(1990)⁴⁾, Sapir(2005)⁵⁾가 제시한 복지모델 유형에 따라 성장과 분배가 우수한 국가들을 북유럽, 대륙, 앵글로색슨 모델로 그룹화하여 효율성 및 형평성 지표를 중심으로 성장과 분배의 특징을 분석
- (비교 대상국 선정) '00~'09년 대비 '10~'15년 경제성장과 소득재분배 수준 모두 상승한 국가를 비교 대상국으로 선정
 - 분석 결과 선진국과 신흥국을 포함한 43개국 중 10개국이 선정
 - 북유럽은 스웨덴과 덴마크, 대륙은 독일과 룩셈부르크, 앵글로색슨은 아일랜드, 영국, 미국, 캐나다로 분류하고 한국과 비교 분석
 - 단, 멕시코, 에스토니아는 제외
- (효율성 평가) 고용과 생산성 지표를 이용⁶⁾
 - 중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을 통해 생산요소의 수요를 확대시켜 고용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이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각 이윤 증대와 임금 상승을 가져다줌으로써 경제 전체의 총수요를 자극하여 경제성장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평가요인이 됨
- (형평성 평가) 소득불평등과 소득재분배 관련 지표를 활용
 - 조세(세금) 및 이전지출을 고려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와 시장소득 지니계수의 격차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지출과 소득재분배 기능의 효과를 평가
 - 소득수준 상·하위 10% 수준을 나타내는 소득분위배율과 상대적 빈곤율 등의 지표를 통해 형평성 측면을 평가

4) G.Esping-Anderson(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5) André Sapir(2005), 「Globalisation and the Reform of European Social Models」, Document for the presentation at ECOFIN Informal Meeting in Manchester.

6) 정진호(2013), 「고용과 생산성과의 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 효율성 평가 결과

○ (경제성장률과 총요소생산성 기여도) 앵글로색슨 그룹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경제성장률 저하 뿐 아니라 총요소생산성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크게 약화되고 있음

- 앵글로색슨 그룹은 경제성장률과 총요소생산성 모두 상승하였을 뿐 아니라 가장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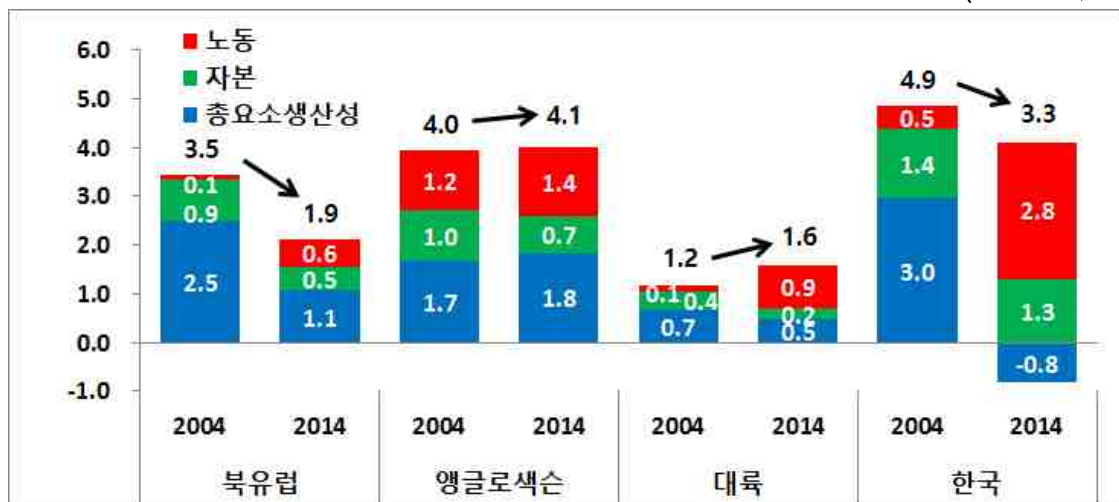
- 앵글로색슨 그룹은 '04년에 비해 '14년 경제성장률과 총요소생산성 기여도 모두 0.1%p씩 상승
- '04년과 '14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앵글로색슨 4.0%와 4.1%, 북유럽 3.5%와 1.9%, 대륙 1.2%와 1.6% 순으로 나타남
-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도 '04년에는 북유럽 2.5%p, 앵글로색슨 1.7%p, 대륙 0.7%p 순이었지만, '14년에는 앵글로색슨 1.8%p, 북유럽 1.1%p, 대륙 0.5%p로 변화

- 한국은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 전환

-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4년 4.9%에서 '14년 3.3%로 약 1.6%p 하락
- 이는 동기간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가 3.0%p에서 -0.8%p로 마이너스 전환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

< 요소별 경제성장 기여도 >

(단위 : %, %p)



자료 : OECD.

주 : 대륙 그룹은 룩셈부르크 지표 미비로 독일만 분석.

- (실업률과 고용률) 실업률은 앵글로색슨과 대륙 그룹, 고용률은 북유럽 그룹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것으로 평가, 한국은 상대적으로 실업률 수준은 양호하나 청년층 고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
 - 실업률 수준은 앵글로색슨과 대륙 그룹이 가장 낮은 수준
 - '05년 전체 및 청년층, 노령층의 실업률 수준은 앵글로색슨 그룹이 가장 낮았으나, '15년에는 대륙 그룹이 전 항목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고용률은 북유럽 그룹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전체 고용률(청년층과 노령층 포함)은 '05년과 '15년 모두 북유럽 그룹이 가장 높은 수준
 - 한국은 청년층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
 - 전체 실업률은 '05년 3.9%에서 '15년 3.7%로 소폭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과 노령층 실업률은 상승
 - 전체 고용률은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까지 개선되었으나, 청년층은 '05년 29.9%에서 '15년 26.9%로 악화

< 그룹 유형별 실업률 및 고용률 >

(단위 : %)

구분	실업률						고용률					
	전체 (15~64세)		청년층 (15~24세)		노령층 (55~64세)		전체 (15~64세)		청년층 (15~24세)		노령층 (55~64세)	
	'05	'15	'05	'15	'05	'15	'05	'15	'05	'15	'05	'15
북유럽	6.3	6.9	15.3	15.6	4.8	4.9	75.0	74.5	52.8	49.5	64.5	69.7
앵글로 색슨	5.4	7.0	11.4	15.6	3.6	5.3	71.0	69.4	54.6	46.2	56.0	59.9
대륙	7.9	5.7	14.4	12.3	7.4	4.7	64.6	70.0	33.7	37.2	38.6	52.3
한국	3.9	3.7	10.2	10.5	2.5	2.8	63.7	65.7	29.9	26.9	58.7	65.9
OECD	6.8	7.0	13.4	14.0	4.6	4.9	65.4	66.4	42.8	40.5	51.7	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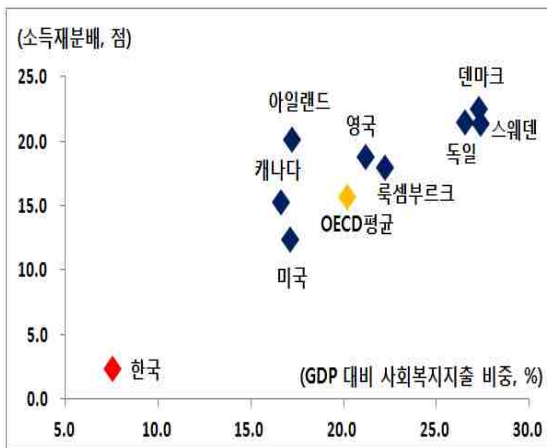
자료 : OECD.
주 : ILO 기준.

3) 형평성 평가 결과

○ (사회복지지출과 소득재분배) 북유럽 그룹이 가장 높은 사회복지지출과 소득재분배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두 지표 모두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평가

- 가장 높은 사회복지지출과 소득재분배 수준을 보이고 있는 북유럽
 -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과 소득재분배 수준은 북유럽이 각각 27.3%, 22.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동 OECD 평균은 각각 20.2%, 15.7로 나타남
- 한국은 비교 대상 그룹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7.5%로 북유럽은 물론 대륙 24.4%, 앵글로색슨 18.0%, OECD 평균 20.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 이는 소득재분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2.3에 불과해 15 이상 수준을 보이고 있는 비교 대상 그룹과는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국가별 소득재분배와 사회복지지출 수준 >



자료 : OECD, SWIID.

- 주1) 소득재분배 = 시장소득 지니계수 -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 2) '00~'13년 평균.

< 그룹 유형별 소득재분배와 사회복지지출 수준 >

구분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소득재분배
북유럽	27.3	22.0
앵글로색슨	18.0	16.7
대륙	24.4	19.8
한국	7.5	2.3
OECD 평균	20.2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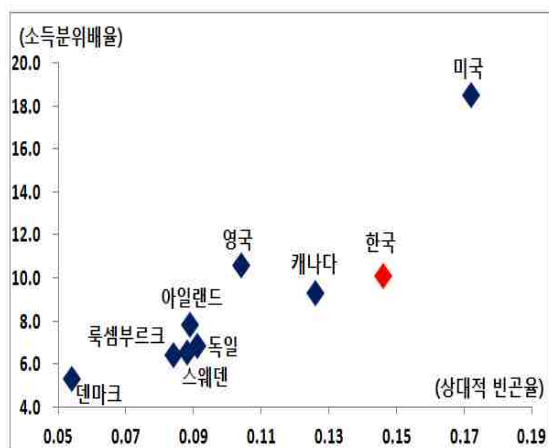
자료 : OECD, SWIID.

- 주1) 소득재분배 = 시장소득 지니계수 -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 2) '00~'13년 평균.

○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분위배율) 북유럽과 대륙 그룹은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분위배율 수준이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한국은 두 지표 모두 앵글로색슨 그룹에 버금갈 정도의 높은 수준

- 북유럽 그룹은 상대적 빈곤율 및 소득분위배율 모두 가장 낮은 수준
 - 상대적 빈곤율은 북유럽 그룹이 '05년 5.3%, '13년 7.1%, 다음으로는 대륙이 동기간 각각 9.0%, 8.8%로 가장 낮았음
 - 소득분위배율도 북유럽이 동기간 각각 4.7, 5.9, 대륙이 각각 6.6, 6.6으로 가장 낮았음
- 한국은 두 지표 모두 앵글로색슨 그룹과 유사할 정도로 높은 수준
 -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06년 14.3%에서 '13년 14.6%로, 소득분위배율도 '06년 9.5에서 '13년 10.1로 상승
 - 이는 '13년 앵글로색슨 그룹의 상대적 빈곤율 12.3%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동 소득분위배율 11.6과 유사한 수준
 - 한편, 국가별로 보면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고, 소득분위배율은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 국가별 상대적 빈곤율 및 소득분위배율 수준 >



< 그룹 유형별 상대적 빈곤율 및 소득분위배율 수준 >

구분	상대적 빈곤율 (세후, %)		소득분위배율 (가처분소득)	
	'05	'13	'05	'13
북유럽	5.3	7.1	4.7	5.9
앵글로 색슨	12.7	12.3	10.2	11.6
대륙	9.0	8.8	6.6	6.6
한국	14.3	14.6	9.5	10.1

자료 : OECD.

- 주1)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인구 대비 중위 소득 50% 미만 비율(0~1 기준).
- 주2) 소득분위배율은 상위 10% 평균소득을 하위 10%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 주3) '13년 기준.

자료 : OECD.

주 : 한국은 '06년과 '13년 기준임.

3. 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분석 모형) 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동적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을 활용⁷⁾⁸⁾

- 실증분석 모델

- 노동 및 자본 투입으로 구성된 전통적 경제성장이론(Solow Growth Model)을 바탕으로 Federico Cingano(2014)를 활용하여 실증분석 모형을 구축
- 종속변수로는 실질 GDP를, 설명변수로는 인적자본, 물적자본, 대외개방도, 소득재분배의 4개 요소에 대한 대리변수들을 이용

- 분석 기간

- 실증분석 기간은 '95~'15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일부 변수의 경우 확보 가능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

- 분석 대상

- 실증분석 대상국은 OECD 34개 회원국들과 9개 주요 신흥국으로 구성된 43개국임
- 단, 성장과 분배 수준이 함께 개선된 10개국은 추가적으로 인적 및 물적자본, 소득재분배의 경제성장 효과를 분석함

< 분석에 활용된 변수 설명 >

시계열 범위	설명	출처
'95~'15년 연간자료	경제성장률 : 실질 GDP(\$)	IMF
	인적자본 :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	World bank
	물적자본 : 실질 총고정자본형성(\$)	World bank
	대외개방도 : 총수출+총수입 / GDP 비중(%)	World bank
	소득재분배 : 시장소득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지니계수(점)	SWIID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7) Federico Cingano (2014), 「Trends in Income Inequality and its Impact on Economic Growth」,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63.

8) $\ln \text{실질 } GDP_{i,t} = (1 + \delta) \ln \text{실질 } GDP_{i,t-1} + \beta_1 \ln \text{인적자본}_{i,t} + \beta_2 \ln \text{물적자본}_{i,t} + \beta_3 \ln \text{대외개방도}_{i,t} + \beta_4 \text{소득재분배}_{i,t} + \mu_i + \mu_t + \varepsilon_{i,t}$

모수의 추정량은 Arellano & Bond(1991)의 차분 GMM(Difference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을 활용하였는데, 이분산성과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여 추정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분석 결과) 소득재분배가 경제성장의 주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전통적인 인적자본과 물적자본과 같은 투입요소들의 영향력을 보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됨
- 전체 43개국 대상 분석 결과 : 경제성장 개선효과는 인적자본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는 물적자본, 소득재분배 순으로 나타남
 -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의 투입이 각각 1%씩 상승했을 경우 경제성장률은 0.18%p, 0.12%p 개선될 것으로 분석
 - 한편, 소득재분배 정도가 1p(시장소득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지니계수, 100점 기준 지니계수) 개선되었을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이 0.10%p 정도 추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개선된 10개국 : 통계적으로 비유의하게 나타난 인적자본을 제외하면 물적자본의 경제성장률 개선 효과가 소득재분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물적자본(1% 추가 투입)과 소득재분배(1p 개선)의 경제성장률 개선효과는 각각 0.20%p, 0.15%p로 추정

< 각 요소별 경제성장률 개선 효과 >

구분	인적자본	물적자본	소득재분배
전체 43개국	0.18%p	0.12%p	0.10%p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개선된 10개국	통계적으로 비유의함	0.20%p	0.15%p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1) 전체 43개국은 선진국 34개국 신흥국 9개국으로 구성.

2)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개선된 국가들은 덴마크, 스웨덴, 미국,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독일, 룩셈부르크, 멕시코, 에스토니아 등 10개국임.

4. 시사점

- 분배가 경제성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지역별 특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동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배 관련 정책의사결정이 중요함
- 지역별 특성에 따라 분배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앵글로색슨의 경우, 북유럽과 대륙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배의 형평성은 낮지만,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
 - 북유럽의 경우는 분배의 형평성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이 크게 하락하면서 경제 성장세도 대폭 약화
 - 한편, 상대적으로 높은 분배의 형평성을 나타내고 있는 대륙의 경우는 경제 성장세는 다소 상승했으나,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이 다소 하락
- 뿐만 아니라 실증분석 결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경제 성장과 분배가 유의미한 정(正)의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분배가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폐해를 수정하여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필요함
- 분배가 경제 성장의 주된 요소는 아니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폐해를 수정·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이 촉진되는 선순환 메커니즘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첫째, 국내 거시경제정책은 경제 성장의 과실이 경제·사회 전반에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물론 4차 산업혁명 대응 강화, 규제 합리화 및 개혁과 같이 기업의 투자와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지속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특히, 디지털 경제의 가속, 4차 산업 혁명 등의 확산 등으로 인적자원의 역량이 생산성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함)

- 이와 더불어 일자리 특히 양질의 일자리 총량 증대를 통한 전체 소득 규모 확대는 물론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노력을 통해 가계로의 소득분배 경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둘째,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분배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분배가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방지해야 함
 - 한국의 경우, 분배의 형평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시급함
 - 따라서 분배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자원배분이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소모성 자원으로 전락하여 경제·사회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갈등을 야기하여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 셋째, 우리 경제가 고령화·저출산 심화 등으로 인한 복지 수요의 증대 및 사회적 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중장기 재원조달방안 마련이 시급
 - 당면한 고령화와 저출산, 일자리, 보건 등의 문제들은 당연히 다양한 복지수요로 이어질 것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출의 확대가 불가피
 -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 전통적인 분배 선진국들의 복지정책은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
 - 한국은 주요 분배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복지제도의 역사가 짧을 뿐만 아니라 경제 및 사회적 구조도 다르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형 분배시스템 구축은 반드시 필요함
- 넷째, 분배를 통한 경제·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생산성 증대 및 이를 통한 성장기반 확충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분배정책의 합리성과 정당성, 지속성을 확보해야 함

박용정 연구원 (2072-6204, yongjung@hri.co.kr)
이부형 이사대우 (2072-6306, Leebuh@hri.co.kr)

9) 최근 기술변화에 대한 수요 변화 속도는 개인과 기업의 적응 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인적역량의 불일치(Skills mismatch)로 인해 임금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는 생산성을 낮춰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측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인적역량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융합형 경제 구조에 맞는 인적자본 역량의 고도화,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 등을 고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OECD (2016), 「The Productivity-Inclusiveness Nexus」, Meeting of the OECD Council at Ministerial Level Paris.

<참고 1> 주요국 그룹별 사회복지지출과 세입 구조 특징

○ 항목별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인 북유럽 그룹은 GDP 대비 총세수도 타 그룹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

- (항목별 사회복지지출) OECD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지출의 9개 세부 항목별 GDP 대비 비중은 북유럽 그룹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 북유럽은 노령(9.0%), 근로무능력(4.9%) 등이 타 모델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앵글로색슨은 소득보조, 공공부조 등이 포함된 기타(0.9%), 대륙은 보건(6.6%), 유족(2.0%), 실업(1.2%)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
- 한국은 9개 항목 모두 평가 대상 모델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며 보건(3.2%), 노령(2.0)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 (세목별 세수) 북유럽 그룹은 상대적으로 GDP 대비 총 세수가 가장 높은 수준인 가운데 GDP 대비 소비세와 소득세의 비중이 OECD 평균 수준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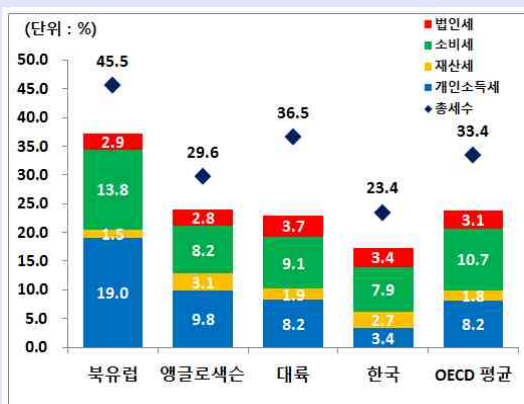
- 북유럽 모델은 소비세(13.8%), 소득세(19.0%), 앵글로색슨과 대륙모델은 각각 재산세(3.1%), 법인세(3.7%) 항목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냄
- 한국의 GDP 대비 총 세수는 23.4%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법인세(3.4%)와 재산세(2.7%)는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모습

< 그룹 유형별 사회복지지출 규모 >

구분	북유럽	앵글로 색슨	대륙	한국	OECD 평균
노령	9.0	4.8	7.1	2.0	7.1
유족	0.7	0.5	2.0	0.2	1.0
근로 무능력	4.9	1.6	3.3	0.7	2.4
보건	6.1	6.4	6.6	3.2	5.6
가족	3.4	2.0	2.8	0.5	2.0
적극적 노동시장	1.4	0.4	0.7	0.2	0.5
실업	0.4	0.8	1.2	0.2	0.8
주택	1.0	0.3	0.5	-	0.3
기타	0.8	0.9	0.3	0.5	0.5

자료 : OECD.
주 : '00~'13년 연평균, GDP 대비 비중.

< 그룹 유형별 세목별 세수 >



자료 : OECD Tax database.
주 : '00~'14년 연평균, GDP 대비 비중.